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조 혜 빈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석사

박 재 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부교수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20~39세 남성 150명, 여성 15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자기불일치는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예방과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 방향의 단서를 제공한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불일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본 연구는 조혜빈(2021)의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박재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6

Tel: 02-584-6851, E-mail: thanotos@kcgu.ac.kr

사람은 여러 가지 정서를 느끼며 살아간다. 기쁨, 환희, 평안 등 대다수 사람이 선호하는 정서가 있는가 하면, 분노, 절망, 공포 등 달가워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싶어 하는 정서도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단연 수치심은 견디기 힘든 정서 중 하나다. 수치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으로 꼽히는 내용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무가치감과 자신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무능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열등감이다. 즉, 수치심이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 혹은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김용태, 2010).

한편 수치심 중에서도 특별히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Kaufman(1989)이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그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기존의 선행 사건이나 상황과는 거의 혹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건이나 상황, 사람들에게 의해 촉발되는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느 상황에서 촉발되어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개인 내면의 성격적 특성으로 고착된 수치심을 말한다(Goss, Gilbert, & Allan, 1994). 이와 관련하여 Goss 등(1994)은 수치심을 상태 수치심과 특성 수치심으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상태 수치심이란 어떤 상황에서 수치심을 예리하고 일시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특성 수치심,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란 상태 수치심에 비해 더욱 만연하고 내면화된 방식으로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치심이 내면화되는 경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감과 부적절감, 열등감 등을 가지게 되고(Goss et al., 1994; Kaufman, 1989; Lewis, 1971), 타인과 교류

하는 것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지연, 2008).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서정민, 박재우, 2019), 개인의 공격성이나 사회불안에도 영향을 준다(김주희, 구훈정, 2019; 구교성, 구훈정, 2019). 이에 더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문제와 유기, 거절, 중독, 애착, 섭식 장애, 정체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적 학대, 트라우마, 폭력, 분노와 연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다수 있다(김수민, 김보영, 2021; Balcom, 1991; Claesson & Sohlberg, 2002; Cook, 1991; Feinauer, Hilton, & Callahan, 2003; Gramzow & Tangney, 1992; Grosch, 1994; Murray & Waller, 2002; Wells & Hansen, 2003; Wong & Cook, 1992).

이렇듯 내면화된 수치심이 개인의 심리 내적인 삶에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증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Thomas(1995)는 수치심이란 타인이 자신에게 거부 반응을 보일 때 나타나는 원시적인 생리적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수치심은 거부의 강도에 정비례하여 발생하는데, 그 거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부당한 개인의 취약성이 무엇인지, 그 거부가 자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한 측면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거부가 기습적으로 온 것인지에 따라 수치심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했다. 이렇게 타인에 의해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것인데(MacDonald & Leary, 2005; Scheff, 2000), 이는 만성적인 낮은 자존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수치심이라는 감정 단어와도 일맥상통

한다(Scheff, 2000; Thomas, 1995). 그러한 이유로 타인에 의한 거부감은 수치심의 일부로 개념화되기도 했다(Gausel, Leach, Vignoles, & Brown, 2012). 이렇듯 타인에 의한 거부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렇게 상대의 거부에 민감한 특성을 Feldman과 Downey (1994)는 거부민감성이라고 개념화했다. 거부민감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호화 경향과 기대, 가치, 자율규계계획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게 예상하고, 쉽게 인지하고, 과민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Downey & Feldman, 1996). 이러한 거부민감성과 수치심의 관련성은 여러 학자가 지적해왔는데, Dennison과 Stewart(2006), Scheff(2000)는 공통적으로 수치심은 타인의 거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수치심은 사회적 거부라는 위협과 연관된 부정적인 자기평가라고 정의 내려진 바 있으며(Gilbert, 2010), 사회적 혹은 수행적 상황에서 받을 거부와 조롱에 대한 두려움이 주된 증상인 사회공포증도 수치심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Claesson & Sohlberg, 2002). 이와 더불어 Lewis(1971)의 연구에서는 환자가 치료사에 의해 거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수치심이 발생한 것을 관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은 사회적 거부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간접적인 추구 행동과 연관이 있다(Williams & Mickelson, 2008; Williams, Laduke, Klik, & Hutsell, 2016). 생애 초기에 거부당하는 경험을 겪은 아이들은 거부민감성이 높아지는데(Feldman & Downey, 1994), 이때 Claesson과 Sohlberg(2002)은 자신을 거부하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은 사회적 상황에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지영(2016)의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기본적인 관계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생겨 내면화된 수치심 역시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근거로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혀냈으며, 이밖에 국내 연구(정미자, 2019)에서도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공통적으로 정서적 자극을 받을 때 고조되며, 접근-회피적 방어 동기 체계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Hattingh et al., 2013). 이러한 두 성향은 모호한 표정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oney, Atlas, Joermann, Eugene, & Gotlib, 2006). 이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괴로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회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에 대한 예상을 말한다(Watson & Friend, 1969). 이러한 두 변인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완벽주의와 연관되어 있는데(Flett, Besser, & Hewitt, 2014), 사회적으로 규정된 완벽주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Hewitt & Flett, 1991). 또한 Buckley, Winkel과 Leary(2004)의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

아도 자신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평가가 언제든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에 비해 분노의 정도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이상의 여러 선행 연구로 미루어 보아 거부민감성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수치심은 타인의 눈에 못나거나 열등하게 보일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 두려움, 특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다(Greenberg & Paivio, 2008). 특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이상적인 내면화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잠재적인 수치심을 높일 수 있다(Liss, Schiffman, & Rizzo, 2013). 심지어 인지 치료사인 Beck, Emery와 Greenberg (2005)는 수치심을 잠재적 평가자의 시선으로부터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믿음에서 파생되는 평가불안의 일부로 봤다. 이와 더불어 서지현(2020)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 많았으나, 반대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를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음을 강조했고, 남순임(2018) 역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시 내면화된 수치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거부민감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과정에서 자기불일치의 역할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기불일치는 Higgins(1987)가 제안한 개념으로, 그는 자기 상태 표상의 불일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하며, 자기(self)를 실제 자기,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실제 자기란 자기 자신 혹은 중요한 타인이 봤을 때 어떤 개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속성에 대한 표상이고, 이상적 자기란 자기 자신 혹은 중요한 타인이 어떤 개인에 대해 이상적으로 가지기를 바라는 속성에 대한 표상이다(Higgins, 1987). 이때 거부민감성의 특징을 다시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은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내현적 자기애가 성인 애착과 관련하여 타인의 거부에 대한 취약성과 과민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Smolewska & Dion, 2005). 한편 Bach(1977)는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이 의식적인 불만과 함께 거울 보완성이 숨겨진 곳에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리적인 자기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 일종의 거대성(grandiosity)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를 통해 자기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Barnett & Womack, 2015). 실제로 Barnett와 Womack(2015)의 연구 결과에서도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가 자기애 성향과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거부민감성과 자기불일치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자기애를 매개로 하여 추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자기불일치 중에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높은 수준의 자기불일치는 앞서 살펴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ss et al., 2013). 특히 Higgins(1987)와 Bizman, Yinon과 Krotman(2001)의 연구에서도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Higgins(1987)는 자기불일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기 분열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종합하면, 거부민감성, 자기불일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성격이란 오랜 시간 한결같이 지속되는 특질이나 행동 경향이다(조성호, 2018). 성격이 개인에게 사회적·직업적으로 기능상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주관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성격장애의 경우에도 그 발생 원인을 알고자 다양한 학파의 수많은 학자가 연구했다(원호택, 2006). 따라서 수치심의 부정적인 특성이 성격적인 특성으로 내면에 자리 잡은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우에도(Goss et al., 1994),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향후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방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의 개입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를 자기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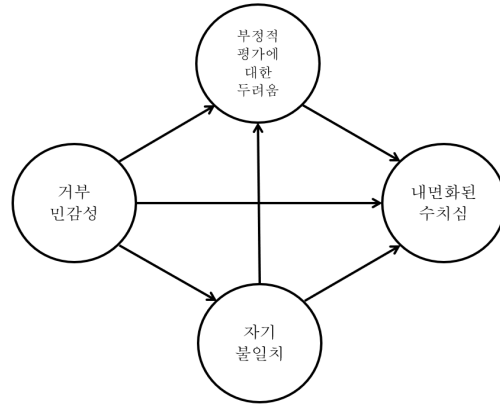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 매개할 것이다. 셋째,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할 것이다. 넷째,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를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순차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가지고 구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은 부분순차매개모형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 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하여 진행했다. 연구를 위해 리서치 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20~39세 성인 300명에게 설문지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1.21세($SD=5.0083$)였다. 자료 수집 대상의 성별 비율은 남성 50%, 여성 50%로 각각 150명이었다.

측정 도구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명진과 양난미(2017)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예기분노가 5문항, 예기불안이 4문항, 과잉반응이 4문항, 거부지각이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기존의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척도가 국내에 정식으로 번안된 적이 없고, 이복동(2000)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이를 번안한 척도는 원척도와 얼마나 대등한지 비교하거나 문화적인 차이가 고려된 바 없으며, 통계적 적절성과 요인구조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었기에(박명진, 양난미, 2017),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문항 검토 후 20~30대 성인에게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선행 연구(김진선, 2017)의 판단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5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k(1988)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

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부적절감이 10문항, 공허가 5문항, 자기처벌이 5문항, 실수불안이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 9, 14, 18, 21, 28번 문항은 응답 편중을 줄이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를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에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1이었다.

자기질문지(Self-Questionnaire)

자기불일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Higgins, Bond, Klein과 Strauman(1986)이 제작한 자기질문지의 제한점을 서수균(1996)이 보완하여 재구성한 폐쇄형 자기질문지다. 자기질문지는 실제 자기,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의 세 가지 유형과 자신과 타인 두 가지 자기에 대한 관점을 조합한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바라보는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두 유형의 자기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실제 자기(22문항)와 이상적 자기(22문항)를 모두 합해 연구 참여자가 실제로 작성하는 것은 총 44문항이지만,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각각의 같은 번호의 문항에 해당하는 점수의 절대값의 차이를 합산하여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요인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어느 쪽도 아니다(0점)’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확실히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9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7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

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질문지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8이었다.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Ⅱ(Korean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2; K-BFNE2)

Carleton, McCreary, Norton과 Asmundson(2006)이 개발한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Ⅱ를 홍영근, 문지혜, 조현재(2011)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11문항이고,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요인 척도이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1점에서 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Ⅱ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4로 나왔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자료의 정상성 검증 및 자료의 정상분포 확인을 위해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는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했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했다. 그리고 구성개념의 타당화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했다. 측정 및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변인 간의 인과적 구조를 확인했고, 변인 간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통해 검증했다. 더불어 AMOS에서는 전체 매개효과만을 검증할 수 있기에 개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가상의 변인인 팬텀 변인(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가상 변인 경로에 부트스트랩을 시행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간접효과도 확인했다(Rindskopf, 1984).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네 변인 간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했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는 .536($p < .01$)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거부민감성과 자기불일치의 관계는 .212($p < .01$)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자기불일치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는 .299($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거부민감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는 .603($p < .01$)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는 .609($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는 .292($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포함하여 기타 모든 변인 간의 관계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거부민감

표 1. 변인 간의 상관계수 ($n=300$)

변인	1	1-1	1-2	1-3	1-4	2	2-1	2-2	2-3	2-4	3	4
1. 거부민감성	-											
1-1. 예기분노	.856**	-										
1-2. 예기불안	.785**	.529**	-									
1-3. 과잉반응	.830**	.558**	.558**	-								
1-4. 거부지각	.830**	.658**	.516**	.654**	-							
2. 내면화된 수치심	.536**	.377**	.592**	.446**	.359**	-						
2-1. 부적절감	.425**	.267**	.539**	.368**	.228**	.949**	-					
2-2. 공허	.463**	.326**	.492**	.398**	.315**	.922**	.834**	-				
2-3. 자기차별	.488**	.396**	.514**	.357**	.334**	.899**	.798**	.792**	-			
2-4. 실수불안	.647**	.464**	.595**	.545**	.561**	.743**	.582**	.629**	.621**	-		
3. 자기불일치	.212**	.057	.189**	.251**	.253**	.299**	.281**	.292**	.186**	.312**	-	
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603**	.440**	.553**	.492**	.534**	.609**	.495**	.511**	.512**	.777**	.292**	-
평균	46.61	14.61	10.74	12.31	9.41	62.39	24.53	13.22	12.43	12.21	35.85	34.95
표준편차	11.16	4.22	3.32	3.38	2.57	17.09	7.79	4.26	3.86	3.08	21.83	8.67
왜도	-.327	-.015	.031	-.120	-.367	.033	.197	-.065	.107	-.160	1.216	-.331
첨도	-.259	-.694	-.501	-.362	-.389	-.223	-.077	-.489	-.597	-.189	2.369	-.108

주. ** $p < .01$

성,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불일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 왜도는 2보다 작고, 첨도는 4보다 작으면 적합하다는 기준에 근거하여(Hong, Malik, & Lee, 2003), 왜도와 첨도 값이 모두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 모형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값을 포함한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표 1에 제시했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인 중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척도 특성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하였다. 문항 묶음을 한 자료는 정규화된 분포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Bandalos, 2002; Naser & Wisenbaker, 2003), 모형적합도가 상승하기에(Matsunaga, 2008), 좀 더 정확하고 안정된 자료를 얻고자 문항 묶음을 하였다. 거부민감성 척도의 경우 기존의 네 가지의 하위요인을 거부민감성1, 거부민감성2, 거부민감성3, 거부민감성4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경우 기존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내면화된 수치심1, 내면화된 수치심2, 내면화된 수치심3, 내면화된 수치심4, 내면화된 수치심5로 재배치하여 분석했다. 이때 두 척도 모두 기존의 문항에서 제외하는 문항 없이 본래의 하위요인 문항들이 각각의 새로운 하위요인에 가장 고른 비율로 모두 포함되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AMOS 프로그램 특성상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요인은 잠재변인으로 입력할 수 없어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두 척도 역시 문항 묶음을 하였다. 자기불일치 척도의 경우 자기불일치1, 자기불일치2, 자기불일치3, 자기불일치4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경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2로 문항을 배치하였다. 이때 두 척도 모두 기존의 문항에서 제외하는 문항 없이 각각의 하위요인에 문항 수가 가장 고르게 배치되도록 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판단하는 지표로는 χ^2 (CMIN),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주로 사용한다. 모형이 모집단 데이터에 적합한지를 알려주는 절대적합지수 중 하나인 χ^2 의 경우에는 χ^2 의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3 이하라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절대적합지수 중 다른 하나인

RMSEA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 이하이면 적합하다고 보고, 증분적합지수인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 χ^2 의 값은 150.024, 자유도는 84, p 값은 .000으로, χ^2 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1.78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MSEA는 .051, TLI는 .979, CFI는 .98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경로 분석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 χ^2 의 값은 150.024, 자유도는 84, p 값은 .000, χ^2 을 자유도로 나눈 값은 1.786, RMSEA는 .051, TLI는 .979, CFI는 .983으로 측정모형의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고, 경로 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은 .261 ($p < .001$)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이 자기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은 .239($p < .001$)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불일치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은 .110($p < .05$)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609($p < .001$)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은 .439($p < .001$)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불일치가 부정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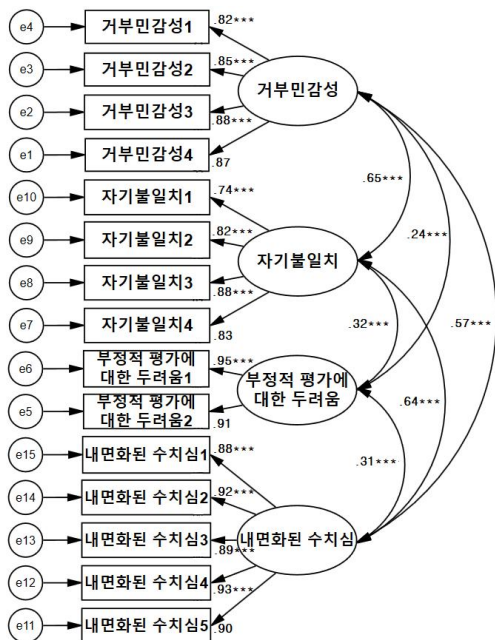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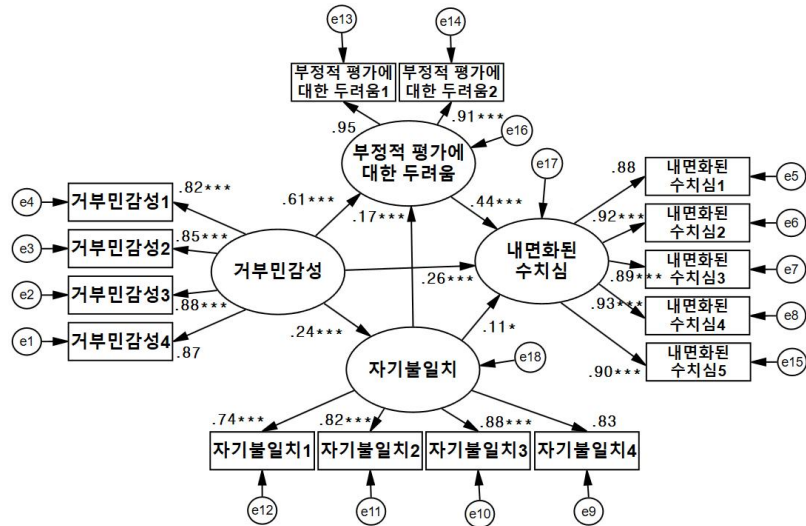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300)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거부민감성→내면화된 수치심	.297	.261	.075	3.972***
거부민감성→자기불일치	.496	.239	.131	3.789***
자기불일치→내면화된 수치심	.060	.110	.028	2.182*
거부민감성→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818	.609	.073	11.17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내면화된 수치심	.372	.439	.058	6.406***
자기불일치→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13	.175	.033	3.395***

주. * $p < .05$, *** $p < .001$

에 대한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은 .175($p < .001$)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효과분석을 계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61($p < .01$)이고, 간접효과는 .312($p < .01$)으로 총효과는 .573($p < .01$)이다. 거부민감성이 자기불일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39($p < .01$)로 총효과는 .239($p < .01$)이다. 자기불일치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10($p = .054$)이고, 간접효과는 .077($p < .01$)로 총효과는 .187($p < .01$)이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표 3. 연구모형의 효과분석 (n=30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거부민감성→내면화된 수치심	.261**	.312**	.573**
거부민감성→자기불일치	.239**		.239**
자기불일치→내면화된 수치심	.110	.077**	.187**
거부민감성→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609**	.042**	.65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내면화된 수치심	.439**		.439**
자기불일치→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75**		.175**

주. ** $p < .01$

려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609($p < .01$)이고, 간접효과는 .042($p < .01$)으로 총효과는 .651($p < .01$)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39($p < .01$)으로 총효과는 .439($p < .01$)이다. 그리고 자기불일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75($p < .01$)으로 총효과는 .175($p < .01$)이다.

팬텀변인을 통한 개별 간접효과의 확인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경로는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순차매개 경로와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각각 매개하는 세 가지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AMOS에서는 전체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만 제공되기에 표 3에 제시된 매개효과의 검증 결과는 각 매개변수의 간접효과가 아니라 전체 매개효과에 관한 검증 결과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모형적합도나 각종 추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상의 변인인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활용하여 각 매개변수의 간접효과를 산출했다. 거부민

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사이에서 자기불일치를 매개로 하는 경로의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상의 변인인 팬텀1, 팬텀2를 추가했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는 경로의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상의 변인인 팬텀3, 팬텀4를 추가했다. 그리고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순차대로 매개하는 순차매개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팬텀5, 팬텀6, 팬텀7을 추가해서 각 경로의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고정하여 분석했다. 팬텀변인을 통한 각 매개변인의 간접효과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02에서 상한값 .092를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간접효과는 95%의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215에서 상한값 .477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p < .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표 4. 팬텀변인을 통한 개별 간접효과

경로	개별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거부민감성→자기불일치→내면화된 수치심	.030*	.002~.092
거부민감성→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내면화된 수치심	.325**	.215~.477
거부민감성→자기불일치→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내면화된 수치심	.499**	.363~.634

주. * $p < .05$, ** $p < .01$

대한 두려움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363에서 상한값 .634를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p < .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로에서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각각의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하며,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순차적으로 거쳐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매개효과 또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수치심이 내면화되었을 때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그 과정을 알아볼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선행 연구에 기초해서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가설을 세우고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그리고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자기질문지, 한국판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Ⅱ로 구성된 설문문을 사용하여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조사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 = .261, p < .001$)을 미쳤다. 즉,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치심은 거부에 대한 반응이며 (Scheff, 2000), 거절감 경험이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선행 연구(Dennison & Stewart, 2006)와 일치하며,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서지영(2016)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수치심이 내면화되기 쉬우며, 또한 수치심에 취약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치심이 내면화된 정도가 큰 사람은 높은 거부민감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자기불일치는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효과($\beta = .030, p < .05$)를 나타냈다. 이때 거부민감성은 자기불일치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 = .239, p < .001$)을 미치고, 자기불일치는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

의미한 정적 영향($\beta=.110,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를 자기불일치가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성인 애착과 관련하여 타인에 의한 거절에 대한 취약성과 과민성을 반영한다는 Smolewska와 Dion(2005)의 연구 내용과 더불어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 일종의 거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그것을 실제로 입증한 Barnett과 Womack(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지위나 존경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를 보이는 사람들은 수치심에 취약할 것이라고 본 Higgins(1987)의 자기 불일치 이론과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치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Tangney, Niedenthal, Covert와 Barlow(1998)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면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가 커지고, 이에 따라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가 높은 사람에 대해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그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가 높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경로를 유념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상담 및 심리 치료 개입 방법을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다른 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확률($p<.05$)이 적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경로보다는 거부민감성, 자기불일치,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래의 순차매개모형이 더욱 설득력 있는 경로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효과($\beta=.325, p<.01$)를 나타냈다. 이때 거부민감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609, p<.001$)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43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 상황에조차 부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Buckley 등(2004)의 연구 내용과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하다는 홍상황과 이은주(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수치심을 잠재적인 평가자들의 시선으로부터 부정적인 자기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평가불안의 한 부분으로 본 Beck 등(2005)의 연구 내용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서로 영향을 주는 순환적 인과성을 떠나라고 본 남순임(2018)의 연구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이에 따라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이 두 변인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특별히 선행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에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정은옥, 2018),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김정은, 손정락, 2012).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향후 수용을 중심으로 한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이 밖에도 거부민감성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 방향을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매개효과($\beta=.499, p<.01$)를 나타냈다. 거부민감성이 자기불일치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239, p<.001$)을 미치고, 자기불일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175, p<.001$)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43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를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순차매개 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이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 내용과 더불어 자기불일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기분열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Higgins(1987)의 연구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향후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가 높은 내담자를 만났을 때 단순히 수치심에 대한 탐색과 개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부에 대한 민감성과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의 불일치,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 순으로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요소에 대한 탐색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이해하여 더욱 면밀하게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자기불일치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관련하여, 자기개념은 자신과의 소통으로 형성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받으며, 대인 간 의사소통 수준이 자기불일치를 완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 있다(박순혜, 2016). 또한 Rogers의 인간중심치료에서 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으로 인하여 이상적 자기가 생기지만, 상담자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통해 자기지각이 증가하고 자기개념이 통합될 수 있다고 한 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권석만, 2012). 즉,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내담자의 의사소통 수준이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입하고, 상담자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의 태도를 보일 때 자기불일치가 줄어들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수용과 연관된 개입 방법을 적용할 때(정은옥, 2018; 김정은, 손정락, 2012),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내면화된 수치심에 이르는 내적 과정을 염두에 둔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내면화된 수치심에 관련된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심화하는지 밝혀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강렬한 수치심을 일으켜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Claesson & Sohlberg, 2002),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내어 내면화된 수치심의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 방향의 단서를 제공한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부민감성과 자기불일치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불일치의 관계를 연구하여 그 관계성을 밝혀내는 데에 일조했다. 셋째,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강화하는 경로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불일치가 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향후 내면화된 수치심을 낮추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변인의 역할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직접적인 관계, 거부민감성과 자기불일치의 직접적인 관계가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한 다른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해 더 많은 이론적·경험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아직 국내에서 자기불일치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변인이나 개입 방법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향후 내면화된 수치심의 감소를 위해 자기불일치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변인이나 개입 방법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다양한 학력을 가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척도를 사용했다. 물론 몇몇 연구자들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긴 했지만(김진선, 2017; 신지연, 2017), 연구 결과의 다양성을 위해 일

반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가지고 후속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한 연구를 하였기에, 연구 참여자의 참여 태도나 설문 내용의 이해도에 따라 연구 결과의 정확도에 약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자기보고식 척도가 아닌 다른 방식의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심화하는 경로를 파악하였으며, 그간 연구가 부족했던 거부민감성과 다른 변인의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구교성, 구훈정 (2019).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긍정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편향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9(4), 505-524.
- 권석만 (201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김수민, 김보영 (2021).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정신화와 고통감내력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179-1199.
- 김용태 (2010). 사회-심리적 특성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해결. *상담학연구*, 11(1), 59-73.
- 김정은, 손정락 (2012). 수용전념치료가 평가염려 완벽주의적 대학생들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경험 회피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749-771.
- 김주희, 구훈정 (2019). 내면화된 수치심과 공

- 격성의 관계: 분노 반추의 매개효과. 인지 행동치료, 19(4), 489-504.
- 김진선 (2017).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임 (2018).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2), 221-241.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박순혜 (2016). 청소년의 대인간 의사소통과 정서지능 및 자기불일치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민, 박재우 (2019).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건중심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1(2), 59-73.
- 서지영 (2016).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타인인정 욕구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현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편집성향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 (2017).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 (2006). 이상심리학. 서울: 범문사.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지연 (2008).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 정미자 (2019). 취약성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옥 (2018).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만족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 (2018). 경계선 성격장애: 나는 누구인가. 서울: 학지사.
- 홍상황, 이은주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역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1), 49-69.
- 홍영근, 문지혜, 조현재 (2011). 한국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117-134.
- Bach, S. (1977). On the narcissistic state of conscious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8(2), 209-233.
- Balcom, D. (1991). Shame and violence: Considerations in couples' treatment. *Journal of Independent Social Work*, 5(3-4), 165-181.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arnett, M. D., & Womack, P. M. (2015). Fearing, not loving, the reflection: Narcissism, self-esteem, and self-discrepancy the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4(1), 280-284.
- Bizman, A., Yinon, Y., & Krotman, S. (2001). Group-based emotional distress: An extension of self-discrepancy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10), 1291-1300.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200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uckley, K. E., Winkel, R. E., & Leary, M. R. (2004). Reactions to acceptance and rejection: Effects of level and sequence of rel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1), 14-28.
- Carleton, R. N., McCreary, D. R., Norton, P. J., & Asmundson, G. J. (2006).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revised. *Depression and Anxiety*, 23(5), 297-303.
- Caesson, K., & Sohlberg, S. (2002). Internalized shame and early interactions characterized by indifference, abandonment, and rejection: Replicate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9(4), 277-284.
- Cook, D. R. (1988).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5), 405-419.
- Cooney, R. E., Atlas, L. Y., Joormann, J., Eugene, F., & Gotlib, I. H. (2006). Amygdala activation in the processing of neutral faces in social anxiety disorder: Is neutral really neutral?. *Psychiatry Research: Neuroimaging*, 148(1), 55-59.
- Dennison, S. M., & Stewart, A. (2006). Facing rejection: New relationships, broken relationships, shame, and stal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0(3), 324-337.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Feinauer, L., Hilton, H. G., & Callahan, E. H. (2003). Hardiness as a moderator of shame associated with childhood sexual abus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2), 65-78.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Flett, G. L., Besser, A., & Hewitt, P. L. (2014).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s in depression: An analysis of validation seek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 community sample of young adults.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77(1), 67-85.
- Gausel, N., Leach, C. W., Vignoles, V. L., & Brown, R. (2012). Defend or repair?: Explaining responses to in-group moral failure by disentangling feelings of shame, rejection,

- and inferio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1-20.
- Gilbert, P. (2010). *The compassionate mind: A new approach to life's challenges*.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s.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 Gramzow, R., & Tangney, J. P. (1992). Proneness to sham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369-376.
- Greenberg, L. S., & Paivio, S. C. (2008). 심리치료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홍표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Grosch, W. N. (1994). Narcissism: Shame, rage, and addiction. *Psychiatric Quarterly*, 65(1), 49-63.
- Hattingh, C. J., Ipser, J., Tromp, S., Syal, S., Lochner, C., Brooks, S. J. B., & Stein, D. J. (2013).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during emotion recognition in social anxiety disorder: An activation likelihood meta-analysis.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6(1), 1-7.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1986).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5-15.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Psychoanal Rev.* 58(3), 419-438.
- Liss, M., Schiffrin, H. H., & Rizzo, K. M. (2013). Maternal guilt and shame: The role of self-discrepancy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8), 1112-1119.
- MacDonald, G., & Leary, M. R. (2005). Why does social exclusion hur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131(2), 202-223.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 Murray, C., & Waller, G. (2002). Reported sexual abuse and bulimic psychopathology among nonclinical women: The mediating role of sham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2(2), 186-191.
- Nasser, F., & Wisenbaker, J. (2003). A monte carlo stud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item

- parceling on measures of fit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5), 729-757.
- Rindskopf, D. (1984). Structural equation models: Empirical identification, Heywood cases, and related problem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3(1), 109-119.
- Scheff, T. J. (2000). Shame and the social bond: A sociological theory. *Sociological Theory*, 18(1), 84-99.
- Smolewska, K., & Dion, K. (2005). Narcissism and adult attachment: A multivariate approach. *Self and Identity*, 4(1), 59-68.
- Tangney, J. P., Niedenthal, P. M., Covert, M. V., & Barlow, D. H. (1998). Are shame and guilt related to distinct self-discrepancies?: A test of Higgins's (1987)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56-268.
- Thomas, H. E. (1995). Experiencing a shame response as a precursor to violence. *The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23(4), 587-593.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457.
- Wells, G. B., & Hansen, N. D. (2003). Lesbian shame: Its relationship to identity integration and attachment. *Journal of Homosexuality*, 45(1), 93-110.
- Williams, S. L., Laduke, S. L., Klik, K. A., & Hutsell, D. W. (2016). A paradox of support seeking and support response among gays and lesbians. *Personal Relationships*, 23(2), 296-310.
- Williams, S. L., & Mickelson, K. D. (2008). A paradox of support seeking and rejection among the stigmatized. *Personal Relationships*, 15(4), 493-509.
- Wong, M. R., & Cook, D. R. (1992). Shame and its contribution to PTS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4), 557-562.

원 고 접 수 일 : 2022. 02. 22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3. 24
게 재 결 정 일 : 2022. 04. 22

Mediating Effects of Self-Discrepancy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Hyebin Cho

Jaewoo Park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Master's Degree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screpancy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To validate the study hypothesis, a survey was conducted on adults aged 20 to 3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perform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Second, self-discrepanc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Thir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Fourth, there was a sequential mediating effect in the order of rejection sensitivity, self-discrepanc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internalized shame. As a result of the findings, several variables affecting internalized shame were identified. The findings provide guidance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terventions on internalized shame.

Key words : rejection sensitivity, internalized shame, self-discrepancy, fear of negative evaluation